

제8회 동주문학상에 '이은 시인'

광주일보·계간 '시산맥' 공동 주관

수상작 '언니, 우리...' 등 5편

해외작가상 이월란 시인

특별상 노세웅·신인상 코샤박 시인

광주일보와 계간 '시산맥'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8회 동주문학상 수상자로 이은 시인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언니, 우리 몰류창고에서 만나요' 등 5편이며 상금 1000만원.

운동주 시인의 '서시'에 담긴 진정신을 구현하고 이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제정된 동주문학상은 지난 2019년부터 운동주서시문학상에서 동주문학상으로 이름을 바꾸고 시집 공모로 응모를 받았다. 총 130여 명이 응모를 한 이번 공모에는 32명의 작품집이 예심을 통과해 5명의 후보 작품이 최종 본심에 올랐다.

심사를 맡은 장석주·나희탁·이병률 시인은 수상작품에 대해 "신자유주의 체제 속에서 노동과 자본, 기계와 인간 등을 둘러싼 집중된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시편들"이라며 "체질의 구체성과 짙진한 묘사가 돋보였다"고 평했다.

강원도 동해 출신의 이은 시인은 2006년 '시와시학'에 '오로라 통신' 외 6편으로 등단했으며, 2012년 시집 '불뿔'이 문화예술위 우수도서로 선정됐다. 2009년과 2013년 문화예술위 창작지원금 수혜를 받았다.

해외에서 우리말로 시를 쓰는 시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제인 동주해외작가상(300만원)은 미국 유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월란 시인에게 돌아갔다. 수상작은 '눈의 집' 등 5편. 이월란 시인은 2009년 계간 '서시' 신인상으로 등단했으며 2014년 유타주립대 비교문화과를 졸업했다. 2011년 재외동포문학상 시 우수상, 2012년 경희해외동포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시집 '모놀로그', '흔들리는 집', '오래된 단서' 등을 펴냈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시인으로 운동주 시인의 민족

어를 시로 구현하는 활동을 펼치는 시인에게 주어지는 동주해외작가특별상(100만원)은 워싱턴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세웅 시인이 선정됐다. 노 시인은 주인도 대사관, 주미대사관, 세계은행 등에서 근무했으며 2007년 계간 '서시'로 등단했다. 워싱턴 문인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2008년 미주 운동주문학상 대상(연세대 미주 총동문회)을 수상했다.

해외에서 우리말로 시를 쓰는 시인들의 활동무대를 넓혀주기 위해 제정된 제4회 동주해외신인상(100만원)은 '아렌달 펄싱 호텔' 등 10편을 응모한 코샤박 시인(본명 박상은)이 뽑혔다. 송의여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한 시인은 현재 노르웨이에서 거주하며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1월 25일 서울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개최된다. 또한 이날 시상식에서는 제18회 최치원신인문학상을 수상한 김금비 시인에 대한 계간 '시산맥' 등단패 수여도 있을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시는 나의 내부에서 출현...살아있는 감각으로 다가와”

동주문학상 이은 시인

운동주는 국난 속 자아성찰한 시인

'서시' 애송...부끄럼 없는 삶 고민

현대사회 노동 현실 들여다 볼 것

제8회 동주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이은 시인은 "제게 부러움의 시인으로, 내성적이고 유약한 시인으로 비춰졌다"며 "그런데 시인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느낀 점은 그는 조국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한 시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운동주 시인이 돌아가신 후쿠오카 구치소 담벼락에 기대어 생각한 적이 있었다"며 "20대 청년 운동주 시인이 감옥에 갇혀 무슨 생각을 했을지 생각해나 가슴이 뭉클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은 시인 인터뷰.

-동주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소감은.

▲나의 시는 어디에서 오는가? 나의 언어는 나의 체험에서, 나의 내부에서 출현한 것들이다. 그것들이 나의 심장을 뛰게 했고, 살아있는 감각으로 다가왔다.

-운동주 시인의 어떤 시를 좋아하는가.

▲'서시'를 좋아한다. 학창시절 책상 앞에 '서시'를 써서 불려놓고 늘 읊미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사는 것은 어떤 것인지, 생각하곤 했다. 운동주 시를 읽으면 문학이 왜 성찰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시 창작을 위해 어떻게 공부했다.

▲중요한 것은 시는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고, 체험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독서력이라고 생각한다.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 허송세월을 보내기도 했다. 그리고 시 이외의 일을 찾아다녔다. 머리를 비우고 몸의 움직임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갔다. 몰류창고나 공장에서의 체험들이 시로 다가왔다. 심야작업을 마치고 돌아와서 새벽에 단박에 써버린 시들이 있다. 잘 다



-향후 계획은.

▲현대사회의 비인간적인 현실을 깊이 들여다보고, 짙진한 노동 현실을 시로 더 가깝게 밀고 나가려한다. 그러나 현실이 곧 시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객관적인 거리를 두고 어떻게 미적으로 형상화할 것인지 고민할 것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들어지지 않은 시들이라 부끄럽지만 거친 대로 읽을 맛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시 창작 외에 어떤 활동 했다.

▲국어 교사를 하다가는술학원을 운영했다. 어느 날, 문득 현대시를 가르치다가 "나도 시를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길로 중앙대 예술대학원에 입학했다. 2006년에 '시와시학'으로 등단했다.

“학창시절 별로 외우던 ‘별헤는 밤’ 감명

현재 노르웨이 삶 담긴 긴 시 쓰고 싶어”

신인상 코샤박 시인

동주해외신인상을 수상한 코샤박(본명 박상은) 시인은 이번 수상에 대해 "오래된 숙제를 마친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20대부터 지평선 넘어 신기루를 쫓으면 무언가 있을 것 같아 여행을 많이 했는데 늘 공백이 느껴졌다"며 "지금은 젊은 날의 서있던 자리에서 가장 먼 곳인 노르웨이에 살고 있지만, 그 모든 여정이 시를 쓰

기 위한 준비가 아니었을까 싶다"고 했다.

그가 생각하는 운동주 시인은 중학교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학교 국어시간에 숙제를 안 했는데, 그 별로 '별 헤는 밤'을 외운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 긴 시를 어찌 외우나 했는데, 막상 외우다 보니 시어 하나하나가 벌이 아니고 벌이 되는 것 같았다."

노르웨이에 거주하다 보니 한인 자체도 없어서 문인 협회나 시인모임은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시집 사



하는 화초도 다시 한번 길러보고, 그림도 그리고, 춤도 추고 싶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는 것도 여의치 않지만 인터넷으로 시집을 읽거나 공모전 수상작을 가끔 읽곤 한다.

향후 계획을 물었더니 그는 "지금 살고 있는 곳의 삶이 담긴 시를 쓰고 싶다"며 "아이가 크고 독립할 무렵이 되는 5,6년 후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계획"이라고 했다.

"조용한 시골에 작업실 하나 마련해 시도 쓰고, 동시와 소설도 쓸 계획이다. 늘 실패하는 화초도 다시 한번 길러보고, 그림도 그리고, 춤도 추고 싶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시 쓰기는 떠도는 자신과의 만남 더 많은 나를 보기 위해 나아갈 것”

해외작가상 이월란 시인

"기대를 하지 않아서인지 많이 놀랐다. 문학상에 응모한다는 건 공부를 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것과 같다. 저의 글들을 돌아보면 부끄러움이 앞선다. 많은 부족함을 다 풀어준 심사위원들, 문 대표를 비롯한 '시산맥'과 광주일보에 감사드립니다."

동주해외작가상을 수상한 이월란 시인은 어떤 때 교과서에서 보았던 시인의 이름으로 문학상을 타게 되니 조금 더 남다른 의미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태어나고 죽은 운동주 시인을 생각하면 정말 사치스러운 글을 쓰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며 자신을 낮췄다.

이 시인은 외국에서 문학을 한다는 것의 어려움에 대해 "매순간 저를 번역해내야만 한다는 건 어쩌면 정신적인 팬데믹을 수시로 겪는 것이기도 하다"며 "한글로 시를 쓴다는 건 마치 어린아이가 아무런 장애나 위험도 없이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 시인에게 시 쓰기는 '떠도는 자신과의 만남'이었다. 그는 "시를 쓰지 않으면 나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싶다"며 "더 많은 나를 보기 위해, 그래서 계속 쓰게



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많은 내가 시를 쓸 때마다 한 가닥씩 견져 올려지는 느낌"이라며 "시를 쓸 때마다 내가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시가 나를 쓰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고 언급했다.

한국의 작가들에 비하면 시를 쓰는 환경은 말할 수 없이 열악하다. 하지만 계속 쓸 수 있는 건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더니 다음과 같은 답이 돌아왔다.

"시를 쓸 때 거의 충동적으로 쓸 때가 더 많다. 계획을 세운다는 건 어디에 갇히는 기분이다. 내가 만든 감옥에 갇히고 싶진 않다. 다만 부끄럽지 않게 더 많이 읽어주겠다는 다짐은 하게 된다. 시를 쓸 때 더 많이 울고, 시를 쓰지 않을 때 더 많이 웃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운동주 시 읽으며 시 쓰기 좋아져 그의 문학 기리며 시문학 일 전념”

특별상 노세웅 시인

"운동주 시를 읽으며 시를 써 보고 싶었다. '서시'와 '별 헤는 밤', '쉽게 쓰여진 시' 등을 읽으며 시가 좋아졌다. 이곳 워싱턴 운동주 문학회의 훌륭한 문우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문우들이 좋아졌다. 운동주 시인을 좋아하는 여러 나라 시인들과 교류하면서 그의 시를 좋아하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주해외작가특별상을 수상한 노세웅 시인은 해외 시인들의 뛰어난 작품들 속에서 제 시가 빛날 수 있다는 생각에 다시 용기가 생겼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노 시인은 미국에서 한평생 영어로 살다가 한글로 시를 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워싱턴 지역에는 한국에서 유명 시인들이 와서 강연을 가끔 하곤 하는데 강연을 듣고 많이 배운다"며 "20여 년 전 은퇴를



하고 이웃에 좋은 시인이 있어서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전염이 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 도 운동주 시인 기리는 일과 '워싱턴 운동주 문학' 편집일을 도우며 시문학에 관한 일을 하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곳에는 한인 이민1세대 들이 은퇴를 하고 자서전을 쓰려는 사람들이 많다. 도와 한글 자서전이나 영어 자서전 쓰는 일을 돕고 싶다. 지금까지 6년 정도 자서전 반 강사로 일하면서 재미도 있고 보람도 느끼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 KIBO | ISO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